

특허청, 위조상품 근절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명 '짜퐁'으로 지칭되고 있는 위조상품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의 심각도에 따라 전국을 20개 중점단속지역(Red Zone), 31개 주요관찰지역(Yellow Zone)으로 나누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특허청은 전국 각지에서 번지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단속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치단체의 단속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부터는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위조상품 유통 방지업무 평가에서도 제도·홍보 실적보다는 고발조치 등 단속실적을 우선하여 반영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보다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특허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5백49개 점포를 단속하여 위조상품 1만1백60점을 적발하고 2백17개 점포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3백32개 점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 이태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짜퐁'들. 시계는 10만~30만원, 지갑은 3만~10만원, 가방은 15만~30만원 선이며 진짜 이탈리아제 160수 원단 양복은 50만원 이상 주어야 구입할 수 있다.

하고 가짜명품과 위조상품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전문가조차 진품과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위조기술도 몰라보게 발전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짜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짜퐁을 찾는 소비층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짜퐁을 사고 파는 행위는 타인의 소중한 상표권을 훔치는 절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명상표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신고센터(전화번호: 042-472-0121, 인터넷번호: /ppc)를 통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제 7위로 상승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우리 나라가 2003년도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 총2천9백47건(전년대비 15.5% 증가)으로 전년도 세계 8위에서 7위로 부상하였다고 밝혔다.

2003년도 PCT 국제특허출원 다출원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순으로, 우리나라가 스웨덴을 제치고 2001년 및 2002년 세계 8위에서 7위로 상승하였다.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은 1970년 6월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에 발효된 국제특허출원 절차에 관한 조약으로, 출원인이 다수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 절차를 용이하게 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년 1월을 기준으로 1백23개국 가입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1984년 8월 10일에 가입하였다.

개도국들의 PCT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가 단연 선두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뒤로 중국, 인도, 남아공, 싱가포르, 브라질 등의 순을 보였다.

특히 개도국 출원인 별 랭킹에 있어서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2백67건 및 2백16건을 출원하여 1, 2위를 차지하였고, LG화학(41건)이 6위, CJ(37건)가 8위, 정보통신연구원(34건)이 9위를 나타냈다. 또한 우리 나라 개인출원인인 손영석씨가 총 34건을 출원하여 정보통신연구원과 공동 9위를 차지하여 눈길을 끌었다.

우리 나라의 이러한 국제특허출원 증가는 국내기업들이 보유기술의 국제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데다, 한국 특허청이 지난 99년 12월 1일부터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어로도 국제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된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간만!

황사, 이렇게 대비하자!

황사 기간에는 한 사람이 평균 흡입하는 먼지량의 3배 정도를 더 흡입하며 먼지에 포함된 금속 성분도 2배에서 최고 10배 가량 많아진다. 이러한 나쁜 먼지와 금속 성분은 눈에 들어가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자극성 결막염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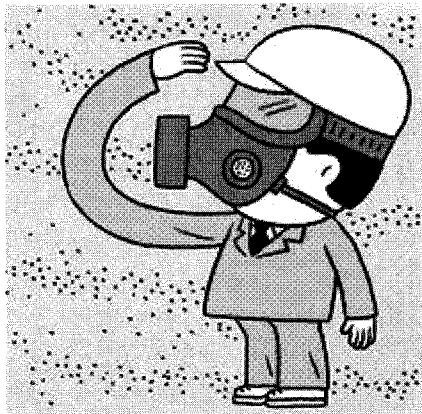
따라서 이 때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마스크, 안경, 머플러 등을 이용해 황사 자극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는 깨끗이 씻도록 한다.

렌즈 착용자는 황사 때 좀더 주의가 필요하다. 렌즈 착용으로 건조해진 눈에 모래먼지가 들어가면 렌즈에 흠집이 생기거나 각막에 쉽게 상처가 날 수 있다. 하드렌즈보다 컬러렌즈 또는 소프트렌즈를 착용한 경우 더 쉽게 자극을 받을 수 있다.

황사주의보가 발령될 때에는 가급적 안경을 착용하도록 하며 렌즈를 착용할 때는 외출시 간단하게 렌즈를 빼서 세척할 수 있는 케이스를 구비하도록 한다.

최근 라식, 라섹, 백내장 수술 등 안과수술을 받은 사람은 외출할 때 반드시 알이 크고 안구 전부를 덮을 수 있는 보호안경을 사용하도록 하며 흡연자가 들어갔을 때에는 절대 비비지 말고 인공누액을 사용해 흘러버리도록 한다.

▶ 황사 기간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마스크, 안경, 머플러 등을 이용해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Beauty Tips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스킨케어 상식 Yes! 혹은 No!

자신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여성들,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정보에도 민감하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요즘,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일까?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스킨케어 상식을 알아보자.

목욕탕에서 땀을 하면 영양흡수가 더 잘 될까?

No! 목욕탕의 더운 습기는 각질을 부풀리므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목욕 후 잠시 오이를 붙였다 떼는 정도의 땀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하게 만들지만 영양이 더 잘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목욕 후에 바르는 베이비오일도 피부에 영양을 주는 것과는 무관! 다만 피부가 건조한 사람은 목욕 후 보디로션과 오일을 섞어서 바르면 수분 증발을 막아주므로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영양크림은 듬뿍 발라야 좋을까?

No! 영양크림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피부는 피지 생성을 게을리 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건조해진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양의 영양크림을 바르는 것은 오히려 피부의 정상적인 순환을 방해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클렌징을 티슈로 닦으면 좋지 않다?

Yes! 티슈가 주는 자극으로 인해 피부가 상할 수 있다. 면 손수건(가제)이나 천연해면으로 만든 천연스펀지가 가장 이상적. 천연스펀지를 사용할 때는 물에 적셨다가 꼭 잔 다음 닦아내도록.

마사지는 자주 할수록 좋을까?

No! 일주일에 1~2회 정도가 적당하며, 시간은 3~5분 동안 하는 것이 적당하다. 너무 오래하거나 자주 하면 피부의 보습물질이 다 닦여져 나간다. 마사지 한 후에는 마사지 크림을 티슈로 푹푹 눌러 닦아내고, 스팀타월로 감싸 다시 한번 닦아내도록.

비누를 쓰면 피부에 좋지 않다?

No! 무조건 비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비누를 전혀 쓰지 않으면 각질, 먼지, 피지 등이 쌓이고 세균이 자란다. 또한 비누 대신 클렌징 제품만 사용할 경우 화장품 찌꺼기와 클렌징 제품이 남아서 피부 자극과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도 있다. 건성 피부 타입은 계면활성제가 적고 보습제가 들어있는 비누를, 여드름 피부에는 유분기를 제거하고 모공을 깨끗하게 해주는 핸드메이드 비누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외선 차단제는 100% 차단되나?

No!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더라도 자외선이 강한 시간(오전 10시~오후 3시)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양산을 쓰거나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땀이 나거나 물로 씻은 후에는 다시 발라주어야 자외선 차단 기능을 잃지 않는다.

기고문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백건수 (백건수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e-mail: patpen@patpen.co.kr
문의전화 (02)538-3951



어느날 발명가 한 사람이 필자에게 특허 상담을 왔다. 그 발명가는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염려하는지 한참을 망설였다. 그래서 나는 변리사가 고객의 발명을 누설하면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발명가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발명은 지구를 뒤흔들 만한 것이란다. 나 역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발명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인데, 지구에 무한히 있는 바다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보지 않았고, 이론적으로만 발명한 것이다. 물론 특허출원을 함에 있어서 샘플은 필요 없다. 이론적으로 맞으면 된다. 그러나 그 이론이 실현가능하여야만 특허가 될 수 있다. 이론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면 특허를 받기 힘들다. 이러한 경우 심사관은 '산업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라고 거절한다.

이런 상황을 보면 발명의 범위도 자신이 구현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 이론을 아무도 실험해줄 수가 없다면 결국 특허출원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이용되는 발명, 예를 들어 오존층의 감소에 따른 자외선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표면 전체를 자외선 흡수 플라스틱 필름으로 둘러싸는 방법도 동일한 이유로 거절된다.

한편 의료업에 있어서는 특이한 점이 있다. 의료업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본래의 산업과 구별된다. 따라서 치료법, 진단방법 등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예: 피임수술법, 심장이식법 등). 그러나 치료기구 및 그 장치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혈액, 소변, 피부, 모발 등)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분석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예: 혈액분석방법, 소변분석방법 등).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혈액, 소변, 피부, 모발 등)을 치료를 위해 채취한 자에게 되돌려 줄 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예: 혈액투석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한다.

또한 동물 발명(여기서 동물이란 사람을 제외한 다세포 동물을 의미함)에 대해서 살펴보자. 동물관련 발명은 동물 자체의 발명, 동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동물을 만드는 방법의 발명, 동물의 이용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1998년 3월 1일부터 인간을 제외한 동물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발명이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적 불이익을 수반할 경우 전제적으로 그 발명에 대해 산업성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 경우 불이익의 제거가능성과 발명의 우월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개척적인 발명 또는 기본적인 발명에는 이러한 기술적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산업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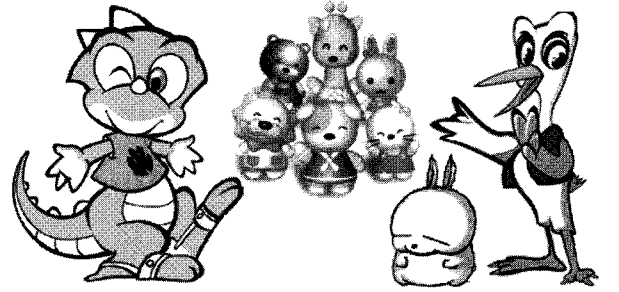
다양한 모습의 캐릭터 상표가 뜨고 있다

최근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친밀감을 갖도록 하여 구매의욕을 증대시키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캐릭터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영화, 소설, 만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친숙해진 캐릭터를 상표로 채택하여 소비자들이 캐릭터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게 함으로써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청이 최근 조사한 상표출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캐릭터 상표는 '동물형 캐릭터' 상표, '인물형 캐릭터' 상표, '식물형 캐릭터' 상표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중 '동물형 캐릭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는 창작한 순간부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만 상표법에 비해 보호가 약한 반면, 캐릭터를 상표나 의장(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독점 배타권이 발생하므로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캐릭터 상표출원을 기초로 국제상표 출원제도인 국제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을 활용하면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에서도



▲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캐릭터를 상표로 사용하는 상품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상표 등록도 증가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캐릭터 상표라 하여 상표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과 같이 TV 만화 영화 등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유명 캐릭터를 '모방'하여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허청에 이공계 우수 인력 몰려

특허청이 최근 실시한 기술직 공무원 5급 특별 채용 시험에 국내 유명대학의 우수 인력들은 물론 해외 유학파까지 대거 지원해 관가에 부러움 섞인 화제를 낳고 있다.

심사 결과 기계·통신·화공 등 9개 기술 분야의 합격자 전원이 국내외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었고, 이 가운데엔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까지 있어 고급 인력의 공무원 선호도를 반영했다.

지난달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38명을 모집하는 이번 특별 채용에 총 6백68명이 응시, 특허청 채용 사상 최고인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허청은 이처럼 특허청의 선호도가 높아진 배경과 관련, '대다수의 응시자들이 연봉에는 상관없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꼽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심사 업무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합격자 가운데는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 박사만도 12명이나 되며 미국과 영국 등 외국 명문대학 출신의 박사 출신도 15명이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통신 분야에 합격한 신재철씨(35)는 일본 지바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로체스터 공과대학 먼셀 색채과학연구소를 거친 영상공학 분야의 전문가로 향후 활약상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섬유 분야에는 외국의 특정 대학 동문 3명이 나란히 합격해 눈길을 모았다. 김종규씨(37)와 이원재씨(35), 조호정씨(33)가 그 주인공인데, 섬유 분야의 세계적 명문으로 알려진 영국의 리즈대학교 출신으로 특허청 심사관의 길을 걷게 됐다.

환경 분야에 합격한 오정아씨(35) 역시 서울대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환경 공학을 전공한 재원으로 환경 분야의 최신 기술과 이론을 특허 행정에 접목해 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특허청은 향후 이들에게 심사 업무의 원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를 맡기는 한편 국책연구소와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연구개발 사업들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동만 특허청장은 '이공계 출신 고급 인력들이 일반 민간 연구소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채용한 인력들이 특허 심사 업무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허청 위상강화 및 전문성 향상과 관련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

영국, 항공우주연구원 최형돈 박사 '올해의 과학자'로 선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채연석)은 유도제어그룹장인 최형돈 박사(46)가 세계 최고 권위 인명사전 발행기관인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의 2004년 '올해의 과학자'에 선정됐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연구원은 IBC가 발사체 유도제어시스템 분야 등에서 최박사의 연구 업적을 높게 평가해 올해의 과학자로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발사체 유도제어시스템 전문가로 로켓의 국내 독자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최박사는 발사체 유도제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논문 80여편을 국내외 유명 저널 및 학술대회에 발표했고 로켓 관련 특허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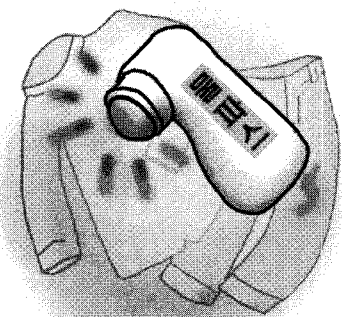
최박사는 비선형 제어시스템 분야에서의 제어기 설계 기술 개발에 대한 공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미국 '마르퀴즈 후즈후사'에서 발행하는 인명사전인 '세계 과학공학 인명사전' 2003~2004년 판에 등재되기도 했다.

생활 속의 지혜

옷에 묻은 볼펜 얼룩 없애려면...

옷에 볼펜 자국이 생겼는데 아무리 여러 번 빨아도 지워지지 않아 속상할 때가 많다. 그럴 때는 물파스를 이용해보자. 얼룩이 생긴 부위에 물파스를 충분히 발라두면 물파스의 휘발성분으로 인해 깨끗하게 지워진다. 알코올이나 시너를 가제에 묻혀 두드리듯 닦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다음에 세제를 20배 묽게 풀어놓은 미지근한 물로 세탁하면 된다. 다만 옷의 성분이 합성섬유일 때는 합부로 시너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얼룩이 생긴 옷에 물파스를 충분히 발라두면 물파스의 휘발성분으로 인해 깨끗하게 지워진다.